대한민국 청와대

보 도 자 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및 제4차 점검회의」 개최

- 메가프로젝트 성과 본격화,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으로 성과 확산 -

-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및 상생 방안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목)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개최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팹(Fab)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메가프로젝트 성과가 지역사회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착공식에는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및 협력사 임직원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충남·충북지사, 세종·대전·아산시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펼쳐집니다'이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환영사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 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축하하며,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실행력을 보여준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투자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의 투자를 선도하는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삼성전자 우수직원 및 자녀,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한 산업통상부 장관, 충남지사 및 아산시장, 메가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기업 대덕전자 대표,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과 함께 착공기념 시삽 및 기념촬영을 하고 착공식을 마무리한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현장에서 주재한다. 이번 점검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네 번째 회의로,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지원 방안과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및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경제성장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충남·충북지사, 세종·대전시장 및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점검회의는 대통령 모두 말씀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충남도지사가 「지방정부 메가프로젝트 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역 중소·중견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메가프로젝트의 이행과 성과 확산을 위한 참석자들의 전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회의 후 이 대통령은 직원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현장

의 고충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끝>